

Glowprint



K-뷰티 제품과 서울 클리닉, 결제 전에 한 번 확인해요.

누구부터 시작하나요

마켓플레이스에서 K-뷰티를 사는 **미국과 동남아 소비자**, 그리고 서울 피부과를 예약하는 **외국인 환자**부터 시작해요.

문제

해외에서 K-뷰티를 사면 세 가지가 막막해요.

- 이 판매처가 **공식 판매처**인지
- 지금 쓰는 제품과 **같이 써도 되는지**
- 어떤 **클리닉 후기**를 믿어야 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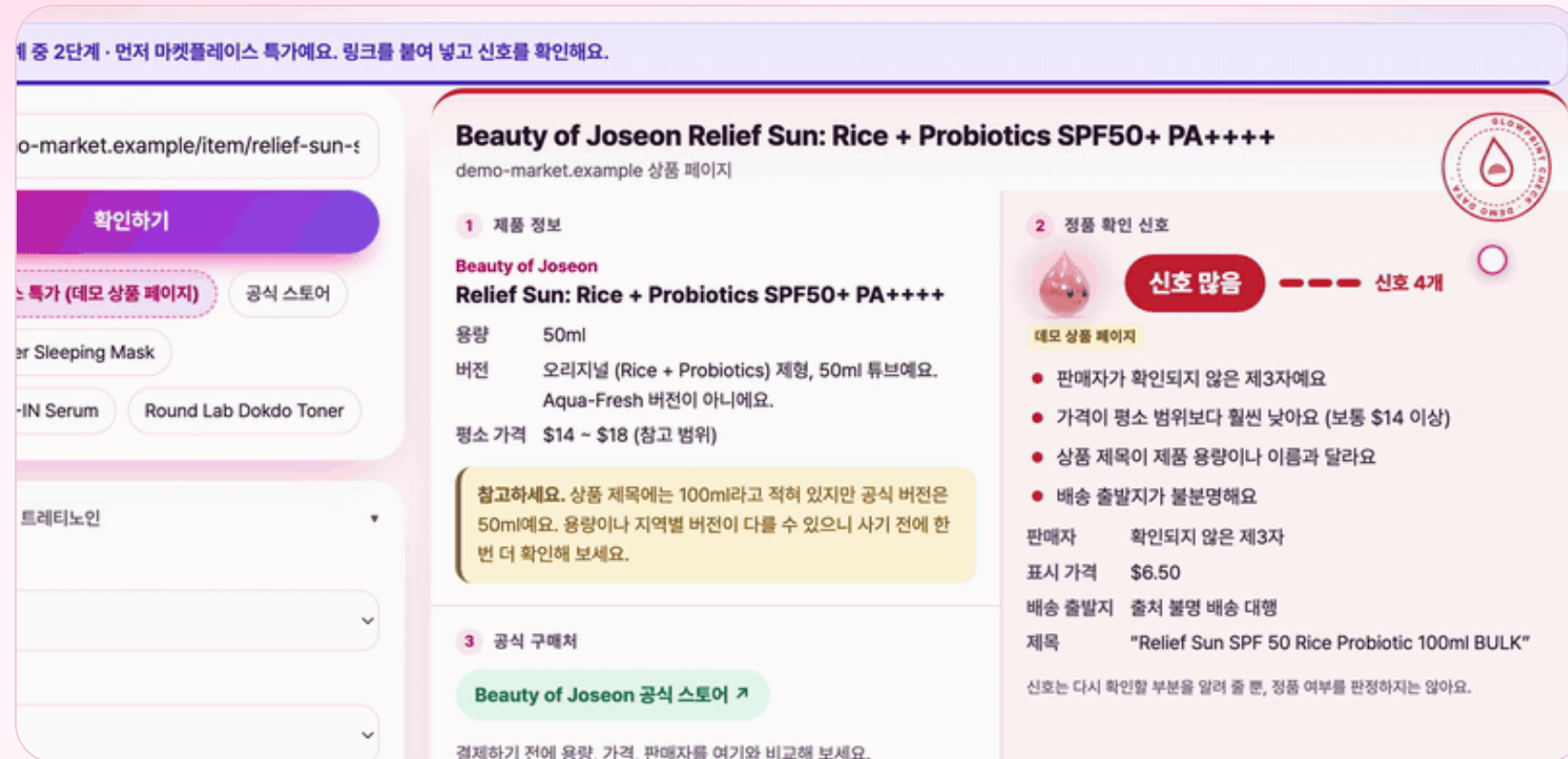


스캔하면 바로 써 볼 수 있어요
glowprint.vercel.app

2025년 화장품 수출은 114.3억 달러, 202개국이었고 가장 많이 산 나라는 미국(22억 달러)이에요 (식품의약품안전처).

2025년 외국인 환자 201만 명 중 62.9%가 피부과를 찾았고, 87.2%가 서울에서 진료받았어요 (보건복지부).

2025년 K-뷰티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는 약 220억 원으로 약 24배 늘었어요 (관세청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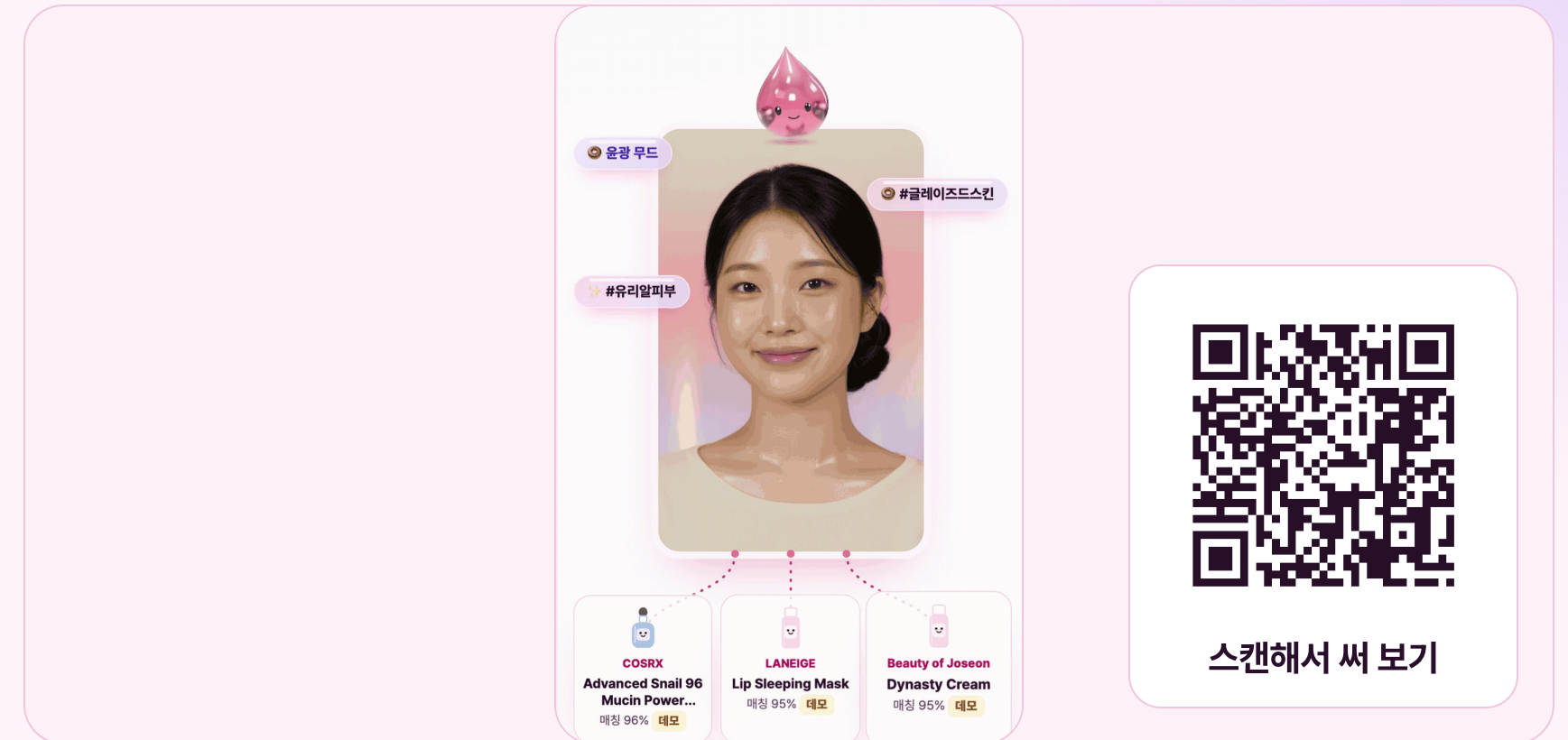


수상하게 싼 링크엔 확인할 점이 여럿 뜨고, 공식몰엔 거의 안 떠요.

무엇을 하나요

상품 링크를 붙여 넣으면 **근거 카드**가 나와요.

- 판매처 신호: **적음 · 일부 · 많음**
- 공식 구매처와 보통 가격
- 내가 쓰는 성분과 겹치는지
- 실제 K-뷰티 제품 16개, 성분표 출처와 함께
- Claude가 카탈로그를 직접 찾아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 줘요



고른 취향이 내 사진 옆에 말풍선처럼 붙어요.

누가 쓰고, 무엇이 달라지나요

해외에서 **K-뷰티를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**, 서울 피부과를 예약하려는 **외국인 환자**.

- 결제 전 1분이면 판매처와 성분 궁합을 먼저 확인해요.
- 써 본 사람들의 체크인이 쌓일수록 다음 사람의 선택이 쉬워져요.
- **Glowprint Plus**(구독 예정): 클리닉 패스포트, 공식몰 가격·재입고 알림.

코드는 github.com/wjgoarxiv/glowprint 에 있어요. 화면 속 판매처와 후기는 시연용 예시이고, 의학적 조언은 아니예요.